

2026년 첫 소식지를 전해드립니다. 지난 편지들에 이어, 하나님께서 도시 사역을 통해 어떻게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.

선교의 흐름과 사역의 전환

현재 상담사역을 하며,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대부분 종교가 없는 내담자들로, 동성애자·양성애자부터 자살 위기 상황까지 다양한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데, 모두 정체성, 자존감, 트라우마 등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치유 과정에서 복음이 자연스레 싹트는 역사를 기대합니다.

이어지는 관계와 가정 모임

미얀마 친구 Ko와는 집에서 모임을 이어가며 가정교회로 성장 중입니다. 이라크 친구프랭크와도 좋은 관계가 지속되며 장기전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. 이처럼 관계 속에서 복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.

열방 도시에서의 2026 비전

제가 있는 이 도시에 200여 민족이 살고 있는데, 이 도시에 각 민족별 가정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습니다. 지하교회나 건물 교회가 아닌, 문화·언어 맞춤 모임을 통해 자생 공동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. 상담과 가정교회를 연결해 2026년 헌신하며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비전은 2026년으로 마치는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.

함께 기도해 주세요

- 상담 사역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,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
- 미얀마 가정교회와 프랭크 가족의 신앙 성장 위해
- 200여 민족이 모여 있는 이 도시 안에 각 민족별 가정교회가 세워지고, 그 안에서 자생적인 제자 공동체가 일어나도록

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동행이 있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담대히 복음과 상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,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